

구할 것 (열왕기상 3:4-15)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할 것이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이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니까 재판을 잘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 인간에게 주신 답은 오늘도 우리에게 답인줄 믿는다. 그 내용이 바로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다.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약이 되기 바란다.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인데 원인은 사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눈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해 놓으셨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잘 아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하셨다. 이 말씀이 살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좌우에 날 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하셨다.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칼로 일을 하시면 아무도 못 막는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배하러 왔다. 찬송하고 기도한다. 헌금도 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예배가 되기 바란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왕이 나온다. 이 분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전국의 우상을 제거한 훌륭한 왕이다. 그런데 어느날 모압 암몬, 에서의 후예들이 힘을 합하여 쳐들어왔다. 아주 큰 일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왕이 기도했다. 언약의 사람답게 전국에 가장 먼저 금식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그 기록에 보면 남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섰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그 중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쳐들어왔던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다. 먼저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인데, 이 둘이 힘을 합쳐 에서의 후손을 다 죽였다. 그런 후에는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었다. 아주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들이 많은 물품을 가져와서 그 물품을 거두는데 삼일이나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언약을 회복한 여호사밧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으로 주셨다. 구체적인 길이다.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다.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답이 되는 이야기이다. 다시 한번 언약이 되기 바란다.

1. 구할 것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는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야 한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왕이 된 이후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천마리의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이다. 놀랍다. 그 날 저녁에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출까하고 물어보셨다. 제사는 언약이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물으셨다. 이 때 솔로몬은 9절에 듣는 마음을 쥐서 재판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이다. 그 앞의 8절을 보면 이 백성은 아주 큰 백성이고 숫자가 많은데 누가 이들을 위해 재판을 하겠냐며 9절을 구한 것이다. 그래서 재판을 잘하게 해달라고 하니, 10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11절을 말씀하셨다. 니가 장수를 구한것도 아니고 부도 구한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위한 지혜를 구했다고 하셨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말을 쥐서 솔로몬의 인생 전, 후로 너와 같은 사람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 아주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한 말씀 더 주셨다.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마지막으로 약속을 하나 더 주셨다. 네가 만일 다윗처럼 나의 길로 행하고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너의 날을 길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과 언약으로 행하면 네가 장수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그 말씀을 받은 후 꿈을 꾀다. 요셉의 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꿈이었다는 것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본문을 이미 읽어봤었는데, 오랫동안 한가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었다. 이 재판이 뭐가 중요하길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냐는 것이다. 솔로몬 같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 마지막에는 많은 여성들로 인해서 우상숭배가 일어났는데도 그 다음 대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다. 물론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지만 그렇게 하고도 용서를 받았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재판 잘하는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 이해가 안되었다. 그런데 차츰 복음을 알아가고 말씀 운동이 뭔가 알아가면서 이해하게 되었다. 이 재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종교지도자가 정치지도자이다.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예를 들어 사무엘같은 사람은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정치와 종교가 구분이 없는 나라였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헌법이 따로 없다. 하나님의 율법이 헌법이다. 재판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재판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고 말씀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주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재판이. 법원에서 결정해버리면 끝인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 육신세계에 말씀이 적용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한다. 사단이 무너지고 말씀중심이 되어 계속 재판을 이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하면 백성들 속에 이 율법이 삶의 기준이 되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은 마태복음 6:33절과 같은 말이라고 깨달아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고 그의 의, 약속의 피의 말씀을 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건 그냥 재판이 아니고 말씀 운동이다.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곧 언약이 전 백성에게 통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종종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라는 말씀들을 만나게 된다. 나는 전에도 이런 말이 이해가 잘 안되었다. 공의는 사회적인 공의이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 같은. 때리면 안되는 것.. 물론 중요하다. 정직히 행하고, 이런 것들은 다윗에 대해 설명할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 죄 안짓고 착하게 살았다는 의미로 받아진 것이다. 그렇게 이해되니 이게 뭐 그리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윗같은 축복을 받을 만큼.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것이 이정도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 언약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이 언약에 대해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언약에 대해서 정직해야 한다. 언약에 대해서 거짓이면 안되는 것이다. 언약이

뭐라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직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 전체에 퍼져서 공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게 했으니,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기특하겠는가? 언약과 관련이 없는 정직과 공의가 하나님 앞에 왜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공의와 정직해야 한다. 그러나 그건 언약을 누림에서 나와야 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정직하기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언약을 위해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전부 언약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언약의 정직함으로 영적 승리가 오는 것이다. 그 영적 승리를 가지고 육신적으로도 정직해 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말씀을 적용하는 바른 재판은 너무나 중요하다.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중의 소원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확하고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소원의 끝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 왜냐하면 사람을 저주에서 건져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 나라, 곧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을 이런 정직한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축복을 안하실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적용되게 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솔로몬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이다.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화도 전무후무하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너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다. 먼저는 내 자신에게 해야 할 것이다. 내 자신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 말씀을 네 삶에 먼저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나를 재판해야 한다. 그래서 내게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정직하고 바르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도와 삶의 모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어떻게? 바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해서. 이것 말고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니 구하지도 않은 것을 주셨다. 마태복음 6:33절, 이런 것은 말할필요도 없어, 너는 이것을 구하라는 것이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이 말 안해도 주는 무엇을 구했다. 깨달아지고 눈열리고 답되고 언약되기 바란다. 우리에게도 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나도 솔로몬처럼 된다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것이다. 이유가 뭐냐면 바른 재판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주세요' 해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잘 못한다. 왜냐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다른 것을 더 하고 싶어 한다. 영적 문제이다. 기도 응답을 막는 사단의 역사이다. 바뀌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진짜 구하지도 않은데 받는 것이 진짜 응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중의 말씀, 이 놀라운 말씀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되는 것이다.

2. 말씀 운동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중요한 삶을 살게 된다.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 운동은 딤후 4:1-2절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바울의 말씀운동의 의미였다. 잘 생각해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이다. 엄청난 것을 배경으로 말씀운동을 하라는 것이다. 이 말씀운동이 솔로몬이 원하는 재판에 들어간 것이다. 성경에는 말씀 운동에 대한 많은 기록이 신구약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 초대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했다. 말씀 운동을. 그리고 사무엘이나 여호사밧같은 왕들도 이것을 했다.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가 아블로 목사에게도 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매일 이것을 2년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사도바울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다. 그는 하루 내도록 구약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기만 했는데 바깥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요게벳이 모세에게 말씀운동을 한 것이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말씀운동으로 결국 로마를 무너뜨렸다. 사무엘상 7장 미스바 운동을 보면 15-17절 보면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어떻게 다스렸냐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들을 해마다 돌아다니면서 다스렸다는 것이다. 무엇으로 다스렸겠는가? 백성을 다스리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말씀 운동이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론에서 본 여호사밧왕도 보면 역대하 17:9에 보면 유대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쳤다고 하고 있다. 이런 왕이 흔치 않다. 레위인을 보내어 율법책으로 가르쳤다는 것이다. 또 역대하 19:5에 보면 유대의 견고한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을 법대로 양심으로 잘했다고 기록해 놨다. 이처럼 모든 우상 제거한 후에 백성에게 말씀을 적용한 왕이다. 그 왕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기적을 주신 것이다. 중요한 메시지이다. 생각해보고 그냥 듣고 끝내지 말고 나를 여기에 세워야 한다. 이것이 말씀을 받고 말씀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의 중요성이다. 아브라함은 수시로 말씀을 받았는데, 롯은 말씀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 롯은 단 한번도 단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다. 아브라함은 많이 있다. 이것이 그 두사람의 인생 차이이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꿈이 야기를 했을 때 죽이기로 결심했다.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내게도 말씀 운동을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말씀 운동을 해야한다는 답에 도달하게 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현장에서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성취한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막는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셨다. 그것이 말씀이다. 이정도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없다. 오직 말씀. 정말로 이번주간에 말씀이 뭔지 깊이 생각해보는 주간이 되기 바란다. 그래서 진짜 답나는 것이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일곱방대이다. 그리고 세가지 뜰, 237, 치유, 서밋이다. 하나님의 말씀중 말씀은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이다. 이것을 위해서 매주 구체적인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전쟁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다. 전쟁 갈 때 총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갔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다. 그러니 싸우지 않고 승리, 이런 단어들은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다. 싸울 필요 없고, 언약 말씀 이것으로 다이다. 이 주간에도 다시 한번 넘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